

제16회 |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우리 사회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여성권의 향상에 헌신해온 여성지도자를 시상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The 16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대상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젊은지도자상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2018년 4월 17일(화) 오후2시, 전국은행연합회관



문의 02-774-9702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악구청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8년 3월호
March
Vol.548

특집 미투운동

백래시, 리부트, 그리고 #MeToo
3.8 여성의 날 YWCA 행진

기획 아젠 에너지전환이다

'홍검수다' 탈핵한마당, 제200차 캠페인
핵에너지국 독일은 어떻게 탈핵국가가 되었는가

이슈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패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혐오의 시대, 신이란 무엇인가 : 영화 '세이프 오브 워터'



70년대 청년문화의 산실 '청개구리'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60~1970년대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청년들의 인권, 반전, 평화운동이 세계적으로 끓어 올랐다. 그 중심엔 포크음악이 있었다. 독재정권의 통제와 보수적인 사회분위에서 탈출구를 찾던 한국 청년들은 통기타음악을 택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다. 그때 YWCA가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1950년대부터 성인과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YWCA는 1970년 6월 29일, 명동1가 1-1번지 서울YWCA에 청년문화공간 '청개구리'를 열었다. 청개구리란 이름은 자유분방한 젊은이의 반항정신과 끊임없는 도약을 뜻했다.

60평 남짓한 직원식당을 개조한 청개구리는 제대로 된 무대는 물론 변변한 의자도 갖추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1주년 무렵 1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숨막힌 청춘들의 '문화 비상구'가 되었다. 청년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했고, 평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열었다. 요일별로 노래와 판토마임, 춤,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곳에서 방의경, 김민기, 양희은, 서유석, 이동원, 이주원, 김도향,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김영세, 이용복 등 통기타 가수들이 탄생하며 한국 포크음악 1세대가 날개를 펼쳤다. 외국 번안곡이 지배하던 시절 직접 만든 창작곡을 부르는 젊은이들이 생겨났다. 창단멤버인 김민기가 만들고, 청개구리 무대를 통해 최고 통기타 가수로 떠오른 양희은이 노래한 국민가요 '아침이슬'이 처음 발표된 곳도 청개구리였다.

참신한 분위기와 호평에도 청개구리는 '지나치게 자유롭고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갈등과 유신정권의 문화예술 검열로 1971년 7월 문을 닫는다. 이후 1983년, 1988년, 2003년 여러 차례 부활을 시도했으나 지속되지는 못했다. 청개구리의 방, 청개구리의 집, 청개구리 마당 등으로 불렸으며 지금의 서울YWCA '마루'가 그 취지를 이어받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 6월 29일 문을 연 청개구리 첫 공연모습



1971년 임문일 DJ와 방의경, 김민기가 공연하고 있다(왼쪽부터).

2018. 3 한국YWCA



표지이야기

'38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희

2018년 4월 주요일정

4월 12일

싱크잡스 협약식

4월 17일~18일

YWCA 전국회장단 연수

4월 17일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4월 19일

제1차 길위의 평화포럼

4월 25일~26일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

제54권 제2호 통권 548호

2018년 3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처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문미란·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신미희·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미투운동과 YWCA 100년 | 원영희

05 **말씀묵상**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 | 백소영

특집 '미투운동'

06 ① 백래시, 리부트, 그리고 #MeToo | 손희정

08 ②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 편집실

10 ③ 회원YWCA 미투운동 지지 캠페인 | 편집실

12 ④ '성폭력' 올바르게 알자 | 편집실

14 **청년토크** 우리도 고발한다 | 초코비·뽀뽀·쥬뜨·불주먹

16 **이슈**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패스, 밥상안전 대책 세워라 | 안재훈

기획 '이젠 에너지전환이다'

18 ① '흥겹수다' 탈핵한마당, 제200차 캠페인 | 편집실

20 ② 회원YWCA 탈핵캠페인 현장 | 편집실

22 ③ BUND 특강 핵에너지 독일은 어떻게 탈핵국가가 되었는가 | 김민주

24 ④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탈핵'을 말하다 | 문윤희

18 **이달의 현장①** 사무총장 해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에너지전환 | 박선

20 **이달의 현장②**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우리에게 '이바쇼'가 필요하다 | 김예지

36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①** 강릉YWCA와 평화올림픽 | 김희숙·고문희

36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②** 인천YWCA 16번의 나눔장터 이야기 | 오수진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세이프 오브 워터> | 이윤숙

40 **연합회 소식**

43 **회원YWCA 소식**

미투운동과 YWCA 100년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끝도 없이 드러나는 “Me Too”(미투) 고백으로 전율하는 요즘이다. 용기를 낸 여성들이 마침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YWCA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정오에 #Me Too(미투)와 #With You(위드 유) 운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서울YWCA는 큰 예산을 들여 준비한 특별공연을 그 연출가가 정의롭지 못한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이사회를 열어 행사취소라는 힘든 결정을 이뤄냈다. 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는 인식이나 자각은 물론 자책도 없이 사회 곳곳에 만연된 성범죄가 ‘미투운동’으로 마침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에서 미투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YWCA 모두에게 “지속 파이팅!”을 보낸다.

그리스도의 생명사랑 실천운동으로 한반도 구석구석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앞장서온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후예인 한국YWCA가 창립 96주년을 맞는다. 1922년 당시 조선 여성들은 일제 강점이라는 슬픈 시대적 배경에 봉건사회 관습이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 이들 세 여성을 세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절묘하다.


한국YWCA는 초기 민족운동, 여성권의 보호를 위한 조혼과 공창제도 폐지운동, 축첩제도 반대운동, 애국운동이던 물산장려운동 등을 시작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최근에는 탈핵생명운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와 새 대통령이 탈원전 계획을 선포하게

꿈 이끈 쾌거를 이뤘으며 성평등, 평화통일, 돌봄 등의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YWCA는 10만여 회원과 동역하며 세계 120개국 YWCA 2,500만 회원들과 연합해 여성주도적 권익 창출을 위한 생명운동 확산에 더욱 주력하는 기독교여성운동 NGO가 되었다. 자랑스럽다. 10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주력해야 하는가.

첫째, 100년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는 한국YWCA의 올곧은 사명은 언제나 여성을 살리는 생명정의 운동을 통한 그리스도 사랑 나눔이라 생각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마침내 이뤄지리니 통일 한국에서의 YWCA 운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청년운동! Y-틴과 대학·청년Y를 살려야 한다.

우리의 꿈과 사명을 나누고 이어갈 새벽이슬과 같이 영롱한 청년YWCA 조직확산이 절실하다. 청년을 살리는 운동은 물론 청년 스스로 과제를 풀어나갈 능력을 키우고 주도할 ‘권력’의 기회도 주어야 한다. 52개 회원 YWCA의 성장과 동력도 선배 시니어Y와 동역하는 필 필 뛰는 동수(同數)의 청년Y들로 인해 지속가능해지리라 믿는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YWCA의 기준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다. 사마리아 여인도 용납하셨던 예수님처럼 선한 나눔에 경계를 두지 말고 포용하며, 공동선을 위해 인류가 함께 나아가는 평화의 길에 영성으로 다진 YWCA가 언제나 맨 앞에 서야겠다.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



백소영
이화여대 교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국 전근대사회에서 YWCA 역할은 컸습니다. 집안 재산으로 여기거나 이름조차 없던 여성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딸로 인정하고 꿈을 갖도록 교육했습니다. 지난 100년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근대후기 어찌면 소위 잘나고 경쟁력이 훌륭한, 혼자 먹고살기 뛰어난 여성들을 양성하는데 그친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봅니다.


사회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근대 작동방식이 어떤 사람들을 만들지 노래했습니다. “타인이 내 뒤에 있다면 영광, 앞에 있다면 수치, 남이 넘어지는 걸 보면 웃는 상황이고, 뒤떨어지면 비참, 앞지르면 행복이다. 이 과정을 포기하는 것은 죽음이다.”

모두가 한 줄로 달리고 있는 세상에서 과감히 걸음을 멈추고 너무 사랑하는 발달장애 여동생을 마주보기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연세대 신방과 4학년 장혜영 학생입니다. 둘은 늘 같이 붙어 다니다가 중학교 무렵 동생 혜정이는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언니는 먼저 잘 되어서 동생을 보살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뻥 뚫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자퇴서를 크게 붙이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납니다.” 동생을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혜영 학생은 말합니다. “동생을 마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지 배워요. 동생은 저를 건설하고 세워가요.”

YWCA의 30년 후를 생각합니다. 강하고 생존력 있는 여성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대로 두면 살 수 없는 여성들을 마주봐야 하지 않을까? 서로를 건설하는 사랑 말입니다. 명동 땅에서 전통과 능력, 토대를 가진 YWCA가 젊은 여성들이 개인만을 위해 사는 비인간적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마주보는 결단을 하도록 돕는 일종의 허브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한 곳을 바라보는데, YWCA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교회는 가부장제와 신분제 한가운데서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권위와 소유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이 토론합니다. 교회 밖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건강한 도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를 건설하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신 구원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은 열심히 지었지만 사람을 건설하는 일에는 조금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ME TOO를 선언하며 외로운 싸움을 펼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평등을 실천하며 “여기로 뛰어 들어오면 살아”라는 메시지와 실천력을 가진 YWCA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3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에 참여한 여성들이 '미투, 위드유' 피켓을 들었다.

여성들의 말하기가 시작됐다

‘아니타 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가? 미국 사회에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던 1990년대 초, 힐은 미국 상원에서 열린 클라렌스 토마스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직장 상사였던 토머스 대법관 후보로부터 당한 성희롱을 고발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토머스는 혐의를 부인하며 “흑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다”는 프레임을 활용해 결국 대법관에 임명된다. 그의 임명을 막지 못했지만 힐의 용기 있는 고발은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힐의 증언 이후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접수되는 성추행 고발이 두 배가 되었는데, 힐의 증언이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해온 폭력을 이해하고 명명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음과 동시에 말할 용기를 줬다.

약 25년이 지난 2017년, 우리는 ‘아니타 힐’이란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된다. 할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시작된 미투 캠페인(#MeToo)에

이어 설립된 ‘할리우드 성폭력 척결과 직장 성평등 진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에 힐이 선임된 것이다. 그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침묵의 문화를 끝낼 때가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최전선에서 성폭력 문화와 싸워온 힐의 컴백을 바라보는 마음은 복잡하다. 1991년 힐이 청문회에 설 수 있던 것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제2물결이 “성폭력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해 온 역사 덕분이었다. 아니타 힐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태어난 ‘침묵하지 않는 주체’였던 것이다.

페미니즘 부트-백래시, 또 다시 페미니즘

하지만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페미니즘은 엄청난 백래시(backlash) 즉, 반격에 시달렸다. 페미니즘 제2물결을 지나면서 미국 사회는 “1990년대는 여자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법석을 떨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

았다.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인 수전 팔루디가 <백래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환호의 이면’에는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고 평등할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참해졌다, 그것은 페미니즘 탓이다”라는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뉴스 가판대에, 텔레비전 화면에, 영화에, 광고와 의사의 진료실에, 학술지”에 나붙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전면전이 펼쳐졌던 셈이다.

지난 25년간 백래시 강풍 속에서 페미니즘은 주춤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을 촘촘하게 파헤치며 반박했던 <백래시>가 베스트셀러에 등극할 정도로 주목을 끌고 다양한 비평과 연구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퇴행의 거센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백래시의 결과는 명백했다. 팔루디에 따르면 여성들의 임금은 여전히 남성들보다 낮았고 유리천장은 견고해졌다. 성차별과 성희롱 신고는 늘었고, 동등한 기회는 줄었다. 1977년부터 1989년 사이에 77곳의 출산조절 클리닉이 폭탄이나 방화 테러에 노출됐고, 낙태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늘어났다. 정치에서 여성의 자리는 급격히 줄었으며, 여성을 위한 연방 차원의 정책 역시 줄었다. 여성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여성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4년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되살아났다. 그야말로 ‘페미니즘 리부트’였다. 그 분수령은 리베카 솔닛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에서 소개하고 있는 #YES_ALL_WOMEN, 즉 “#여자들은_모두_겪는다”이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미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를 비판하고 여성이 겪는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차별, 그를 둘러싼 공포와 불안을 고백하는 운동이었다. 이와 함께 할리우드 유명인을 중심으로 셀렘 페미니즘이 급부상했고, 2017년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 폭로와 #ME_TOO 운동으로 이어졌다. 아니타 힐의 재등장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페미니즘의 부흥과 그에 대한 반격, 그리고 반격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MeToo 운동을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없을 터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행진에서 여성 참가자가 '정치, 이제 여성이 한다'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제는 사회가 응답할 차례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안에서 1990년대 영페미니즘 운동이 부흥했고, 사회의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IMF 이후 남성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하면서 페미니즘과 여성의 진보에 대한 반격이 거세게 불었다. 여성을 향한 대대적 해고와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문화적 퇴행이 2000년대 여성혐오 문화를 초래했다. 여성혐오 문화는 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물리적 폭력을 야기함으로써 여성의 실존을 위협해 왔다. 그렇게 절벽으로 내몰렸던 여성들은 2015년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을 시작으로 ‘다시 또 페미니즘’을 말하고 있다. 그 흐름 안에서 ‘#00계_내_성폭력’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지구적 페미니즘 흐름과 접속해서 #MeToo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는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진보와 퇴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페미니즘은 부트-백래시-리부트-백래시의 과정을 반복하며 험겁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는 개개인의 여성들 역시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 번 달라진 인식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언젠고 다시 용기낼 수 있다고 말이다. 힐의 말을 되새긴다. 침묵의 문화를 끝낼 때가 되었다. 여자들이 깨치고 나왔으므로, 이제 한국 사회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다. 🏆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에게 힘을 주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110년 전 빵과 장미를 들고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미국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성차별 인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한국YWCA 회원들의 외침이 여기에 있다.”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3.8 여성의 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인 YWCA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Me Too 성폭력 피해고발)을 적극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는 3월 8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2시까지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을 열고, 각계각층 여성들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고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수사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YWCA는 연합회 임원과 실행위원, 위원, 청년회원, 실무활동가와 서울YWCA 회원 등 100여 명은 기

자회견을 마친 뒤 명동거리를 행진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미투운동’ 동참을 뜻하는 검정색 의상과 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액세서리로 성폭력 근절운동에 대한 지지 연대를 표현했다.

성범죄에 대한 총체적 대책 필요

사회를 맡은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고통에도 그 고통을 견뎌낸 생존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면서 이날 행진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의 행진과 선언이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성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이 단순한 지지를 넘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위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총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세계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YWCA와 함께



YWCA 회원들이 검정색 의상을 입고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성폭력도 용납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말하고(#Me Too), 나서서 막고(#Me First), 더불어(#With You), 우리가 함께(#We First) 외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유네스코회관 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미투운동’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고 다시 한국YWCA회관으로 돌아와 장미꽃을 YWCA 설립자와 창립정신을 형상화한 부조 앞에 놓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회원YWCA 전국 곳곳에서 행진

3.8 여성의 날을 기념한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통영을 비롯해 고양, 광주, 군산,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마산, 부천, 사천, 세종, 속초, 수원, 안양, 여수, 익산,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파주, 포항 등 회원YWCA도 각자 지역에서 기자회견이나 행진을 하며 ‘With You’ 연대에

참여했다. 서울YWCA는 ‘미투운동’ 동참의 뜻으로 성폭력 가해자 윤호진씨가 제작한 뮤지컬 ‘명성황후’ 특별공연을 취소했다.

한국YWCA는 이보다 앞서 2월 7일 정기총회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피해 고발로 확산된 ‘미투운동’ 지지를 결의하고, 2월 12일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한국YWCA는 340여개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참여해 우리 사회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더 적극 나서기로 했다. 3월 15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한 시민행동은 미투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도록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차별에 맞섰던 YWCA 이젠 미투운동에 동참한다

1922년 창립한 YWCA는 지금까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초기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당시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공창제도 폐지와 축첩제 반대 등 악습을 없애는데 앞장섰다. 가족법개정 운동을 적극 벌여 호주제 폐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기틀을 다졌다.

2018년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 뿌리 깊게 자리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주의 세상을 위한 여성들의 힘찬 발걸음이다.

성차별에 맞선 여권향상 운동에 언제나 함께했던 YWCA가 이제 미투운동에 동참한다. 3.8 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진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회원 YWCA 캠페인을 모았다.



1960년 명동에서 여성유권자 축첩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YWCA 회원들(위). 2018년 명동에서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YWCA 회원들(아래)



고양 YWCA

화정역



안양 YWCA

범계역 로데오거리



군산 직할지부

군산YWCA 앞



논산 YWCA

백제병원 사거리



대구 YWCA

대구YWCA 회관 앞



마산 창원 진해 YWCA 연합

진해 경화역



광주 YWCA

광주YWCA 회관 앞



울산 YWCA

울산YWCA 앞



청주 YWCA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



춘천 YWCA

춘천 명동일대



천안 YWCA

천안 종합터미널



충주 YWCA

충주시 문화회관 앞



동영 YWCA

동영지청 인근



세종 YWCA

대전 검찰청 앞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에 관한 용어와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의 정의와 개념, 용어를 정리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性)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용어이자 가장 넓은 상위 개념이다. 성을 매개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가해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용어로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성과 관련된 모든 언행을 성폭력이라고 표현한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에 의해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에는 강간죄에서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했으나 개정 형법에서 ‘사람’으로 변경했고,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된다.

성추행 성욕을 자극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나 강제 추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키스

를 하거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가 해당된다. 강제적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과 성희롱 혼용해 사용되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상대의 성적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용어로 직장내 성폭력 행위를 말한다. 고용과 업무 등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껌안거나 만지기 등 강제적 신체접촉, 회식 때 옆자리 착석 강요, 술 따르기 종용, 음담패설, 외모평가, 음란물 보이기, 신체 노출 행위 등이 해당된다. 남자 직장상사와 여성 직원 간의 성희롱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 직장상사와 남성 직원의 성희롱도 해당된다.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한국의 현행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어느 정도여야 한

유럽성평등연구소

여성에 대한 물리적, 성적 또는 심리적 위하나 고통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도 있는 젠더 기반의 모든 폭력행위, 공적 또는 사적인 삶 속에서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제 또는 임의적 자유의 강탈도 포함한다.

한국 ‘여성에 대한 폭력’

(2018.2.21. 정춘숙의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의안) :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다는 기준은 없지만, 법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원이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동의여부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성폭력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정부도 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의 경우 이미 ‘저항’이 아닌 ‘상호간 동의’ 여부를 성폭행 기준으로 보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스웨덴은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인정되면 강간으로 판단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더 나아가 상대의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로 본다. 침묵이나 저항의 결여도 동

	영국 스코틀랜드	상대의 동의 없으면 강간
	스웨덴	상대의 동의 없으면 강간
	독일	상대의 거절 있으면 강간
	미국 캘리포니아	상대의 적극적 동의 없으면 강간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 성관계는 강간
	대한민국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

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 명백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한다.

피해자의 수치심 성추행과 성희롱은 성범죄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따른다.

즉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9년 대법원은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을 해주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한 학생이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친구들까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해 성추행으로 판결했고 이후 성추행 판단의 기준이 됐다.

처벌

형법에 포함된 성범죄는 성폭행과 성추행이다.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상죄,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해당된다.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청년들이 겪는 일상속 성폭력 학교, 일터, 교회 어디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행진에 참석한 청년들

미투운동이 활발한 지금 YWCA 청년들도 자신들이 겪은 성희롱, 성폭행을 용기 있게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들의 #Me Too 사연을 신는다. 이름은 별명으로 신는다.

교복 입은 몸매가 예뻐 초코비(23세)

얼마 전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와 똑같은 이유였다. 우리 학교는 남학생, 여학생 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선생님은 남학생에게 매를 들고, 여학생 반에서는 성희롱을 서슴지 않았다.

“여학생은 1학년 때 몸매가 제일 예뻐. 3학년 땐 살찌서 꼴보기 싫거든. 지금부터 관리 잘해” “○○는 교복 입은 몸매가 예뻐서 지나가는 남자들이 침 흘리겠다.” 그때 왜 친구가 성희롱을 당하는데 부당하다고 말 못했을까? 선생님은 가족에게도 그랬다. “내 딸은 중학생인데 가슴이 C컵이야. 예뻐서 아무도 못 주겠어” “마누라가 대학교에서 인기가 쎄 많았는데 내가 낡았지. 내가 몸매를 일등으로 보는 건 말 안 해도 알지?”

남편이, 아빠가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알고 있

을까? 그 선생님은 수업보다 성희롱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질문하러 간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놀라면 오버하지 말라며 딸 같은 너희에게 흑심을 품겠냐고 정색했다. 우리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다. 똑같이 당했지만 우리는 그때 침묵을, 지금 학생들은 신고를 택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선배들의 기쁨조였다 뽀뽀(22세)

20살 때 동아리에서 매주 한 번씩 마니또를 뽑고 술 자리를 했다. 마니또 짝은 정해져 있었다. 고학번 남자 선배들은 원하는 여자후배가 적힌 종이를 가져갔다. 마니또가 되면 남자선배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밥 먹자면 밥을, 술 먹자고 하면 술을 먹었다. 술자리에서 여자 신입생들은 잔과 수저를 들고 30분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선배들 옆에 앉아 비위를 맞췄다. 기쁨조를 하려고

대학에 입학했나 싶었다.

사건이 터진 날도 동아리 회식이었다. 막차를 놓친 우리는 여자선배 자취방에서 자기로 했다. 그런데 한 남자선배가 많이 취했고 막차도 끊겨서 같이 자겠다고 했다. 나와 친구는 당황했지만 여자선배는 익숙한 듯 그러라고 했다. 여자선배와 친구는 침대에서 나와 선배는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 2시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니 남자선배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너무 무섭고 놀랐지만 몸이 굳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잠꼬대인 척 몸을 돌렸다. 그만두겠지 했지만 몇 분 뒤 선배는 더욱 과감해졌다. 내 등을 감싸 안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눈물이 났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했다. 다행이라 하기도 웃기지만 선배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고 선배는 일어나자마자 어젯밤 너무 취해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평소처럼 행동했다. 소름이 돌아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동아리에서 최고참이었던 선배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 몇 명이 내 편을 들어줄까. 나는 동아리를 그만뒀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미투운동을 보면 그날 일이 다시 떠오른다. 선배는 나의 침묵으로 내 친구와 후배에게 똑같은 짓, 아니 더한 짓을 했을지 모른다.

‘을’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할 때 쥬뜨(24세)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매일 성희롱을 겪었다. 40대 남자 점장은 여자 직원들에게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나 만나줄래?” “몸매가 좋아서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며 성희롱을 했다. 기분 나빴지만 대들지 못했다. 점장에게 잘못 찍혀 해고당하면 다시는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피해 다닐 뿐 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도 생각해봤지만 점장이 알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릴 게 걱정돼 하지 못했다.


성추행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도 있다. 얼마 전 MT

를 갔다. 일이 있던 나는 일찍 돌아왔다. 다음날 후배가 울면서 전화했다. 자다 깬더니 어떤 오빠가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것이다. 강하게 저항하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그런 거라며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고 했다. 충동이었다는 사람이 화장실에 팬티까지 벗어두고 왔을까? 자리에 있던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10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니. 결국 그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아무런 징계 없이 말이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다행이라고 위로했다. 나는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다. 손님들도 만만치 않다. 아재, 할배 손님들은 티켓을 줄 때 은근히 손을 잡으며 스킨십을 한다. 손님의 평가로 업무가 평가받는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들은 싫다고 화를 낼 수도 욕할 수도 없다. 피하는 방법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부르는 것뿐이다. 갑을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폭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쁜 자매를 찾는 목사님 불주먹(26세)

교회에서 자매를 향한 칭찬을 빙자한(가장한) 언행들은 가히 성희롱에 가까웠다. 교회에서는 군부대 선교를 위해 특별 위문공연팀을 꾸리곤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다리 예쁜 자매’가 꼭 참석해야 한다”며 위트 있는 농담인 양 말씀한다. 다리 예쁜 자매가 가면 장병들이 하나님이라도 만나게 되는 걸까.

특히 새 신자 반에는 예쁜 자매들이 적극적으로 봉사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짧은 치마라도 입고 오면 형제들에게 최악된 마음을 품게 한다며 마녀 취급을 하곤 한다. 또한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거부하기라도 하면 예민한 사람이 된다. 친구들과 말하다 보면 전도사나 목사에게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당했을 때 주변에 말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되레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사역자들의 은혜롭고 순수한 돌봄과 섬김을 음란한 행위로 오해하는 게 ‘자매’의 잘못일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3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YWCA 회원들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

WTO는 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2월 23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WTO(세계무역기구) 패널 보고서가 공개됐다. 아직 상소과정 등이 남아 있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식탁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습 검출시 기타핵종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 등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시중에 그대로 유통돼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전체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 무역제한, 투명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TO는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거나, 일본산 수입식품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세습검사 조치만으로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우선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부터 의문이다. 송기호 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문제를 말하며, '2015년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현지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활동을 중단한 것이 패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도 SPS협정 5.7조

에 의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잠정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위해성이 없음은 일본이 증명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답답한 것은 일본의 WTO 제소 이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들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무부처는 아직도 통상, 외교 협상 문제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에 일본 정부의 입장과 한국 전문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세한 비밀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민과 소통해 의견을 모으고, 최소한의 대응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라는 것이다.

늦었지만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 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다. 2017년 7월 도쿄전력 회장은 탱크에 보관 중인 약 78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말했다가 일본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입장을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 모두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 오염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여전히 후쿠시마 주변 지역의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 역시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규제조치를 시행한 2013년과 비슷한 양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세습검출 시 추가 핵종검사를 요구한 것도 이유가 있



YWCA를 비롯한 12개 여성·환경단체가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다. 2015년 9월 도쿄전력은 4차례에 걸쳐 원자로 건물과 터빈에 쌓여 있는 오염수 약 3,400톤을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했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와 스트론튬 등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다고 한다. 비용과 시간, 장비 등의 문제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검사를 매번 하기 어렵다. 때문에 세습이 검출됐을 때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가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가 해제되면, 우리 식탁안전은 무너지고 다시 전체 수산물 기피 현상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환한 만큼, 정부는 방사능 안전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원전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WTO 패소 대응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위험성 평가, 현지조사, 일본 정부의 안전성 입증책임 요구, 전체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관리 대책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관합동대책기구 등도 구성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게만 맡겨놓고 안심하기엔 상황이 좋지 않다. 방사능 오염 식품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YWCA



YWCA 회원과 시민들이 3월 20일 제200차 탈핵캠페인을 맞아 명동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4년 3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한 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이 200차를 맞았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펼쳐온 지 4년 만이다. YWCA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7주기를 맞아 3월 20일(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제200차 탈핵 불의 날 캠페인 '흥겹수다' 탈핵 한마당'을 열었다. 한국YWCA회관 앞과 명동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200명의 회원, 시민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독일처럼 핵발전소 폐쇄해야

제20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광개토사물놀이 예술단'의 흥겨운 풍악과 '마룻바닥 비보이 크루'의 비보잉 댄스로 막이 올랐다. 대안학교 하자작업장센터 졸업생으로 구성된 타악그룹 페스티벌은 탈핵캠페인 때마다 울려 퍼졌던 노래 '항해'를 부르며 흥을 북돋았다. 탈핵을 위해 모인 시민들 얼굴에 웃음과 흥겨움 피어났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그동안의 YWCA 탈핵캠페인 발자취를 돌아보며 고리1호기 폐쇄 10만명 서명운동으로 2017년 영구정지를 이뤄낸 것과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전환 시대를 선포하기까지 YWCA 활동성과를 짚었다. 앞으로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포했다.

국내외 인사들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난 4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탈핵캠페인을 이어온 YWCA 회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일본 출신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이자 사야나라누크&후쿠시마주민 지원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는 히루미 후쿠자와 대표는 "독일 한파로 비행기가 결항돼 200차 캠페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YWCA 탈핵에너지전환운동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전해왔다.

특히 독일 최대 환경단체로서 독일 사회의 탈핵 에너지전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트'(BUND·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 리차드 메르그너 부회장은 이날 YWCA 캠페인에 직접 참석해 "한국은 더 이상 핵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독일처럼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개토사물놀이예술단이 사물놀이로 여는 공연을 하고 있다.



명동거리를 행진하는 YWCA 회원(왼쪽부터 조종남 서울YWCA 회장, 한영수 연합회 회장, 메르그너 분트 부회장, 원영희 연합회 부회장).



방진복 차림으로 핵폐기물통을 메고 원전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가운데)과 YWCA 회원들이 탈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탈핵 중차역은 에너지전환

하선규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대사와 최선화 탈핵생명위원회 청년위원이 나와 호소문을 낭독했다. YWCA는 호소문을 통해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후쿠시마를 통해 목격했다며,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에 대한 근본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탈원전의 중차역은 에너지전환임을 강조하고 △월성1·2·3·4호기를 비롯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 조기폐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 1심 패소판정에 대한 강력대응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에너지 자립정책 적극 추진 등을 촉구했다. 조종남 서울YWCA 회장은 다짐 기도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사고에 대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핵 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기도했다.

이어 광개토사물놀이예술단과 마룻바닥 비보이 크루

가 앞장서며 200여명의 탈핵행진이 시작됐다. 울려 퍼지는 풍악과 함께 YWCA 회원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햇빛 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명동 거리를 걸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월성1호기 인형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핵폐기물통 모형을 맨 방진복 차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마룻바닥 비보이 크루는 지진 위험지대 핵발전소 안전문제를 몸으로 표현하는 비보잉 댄스로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탈핵캠페인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34개 지역에서 펼쳐졌다. 3월 한 달간 거제, 광명, 광양, 광주,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수원, 안산, 안양, 양산, 익산, 의정부, 전주,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통영, 파주, 포항, 하남 등 33개 회원YWCA가 후쿠시마사고 7주기 기념 탈핵캠페인을 벌였다. 

핵을 끄고, 해를 쬐자! 회원YWCA 탈핵캠페인

YWCA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7주기를 맞아 3월 6일부터 13일을 탈핵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3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33개 회원YWCA의 탈핵캠페인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서울은 연합회가 주관한 3월 20일 제200차 탈핵캠페인 참조(18~19쪽).



광명YWCA 철산역



광양YWCA 광양읍 새마을금고



거제YWCA 고현시내 사거리



광주YWCA 중앙우체국 앞



김해YWCA 농협 앞



남양주YWCA 도농역



남원YWCA 남원YWCA회관 앞



논산YWCA 백제병원 사거리



대구YWCA 대구백화점 앞 광장



대전YWCA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마산·진해·창원YWCA 창원 상남동 일대



목포YWCA 목포역



부산YWCA 서면 주디스태화백화점 앞



부천YWCA 유한대학교 앞



수원YWCA 수원YWCA회관 앞



양산YWCA 이마트 후문



익산YWCA 익산YWCA회관 앞



천안YWCA 천안터미널 야우리광장



통영YWCA 중앙시장 인근



사천YWCA 삼천포 새시장



안산YWCA 월드코아광장



여수YWCA 부영3단지 사거리



전주YWCA 평화동 BYC 앞



청주YWCA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



파주YWCA 파주시청 앞



서귀포YWCA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일대



안양YWCA 범계역



울산YWCA 삼호주공 삼거리



전주YWCA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



춘천YWCA 춘천명동 입구



포항YWCA 5호광장 일대

핵에너지국 독일은 어떻게 탈핵국가가 되었는가

김민주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



강연하고 있는 리처드 메르그너 BUND 부회장

2011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발전소가 멈추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누출됐다. 세계는 크게 놀랐다. 독일에서도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급물살을 탔다. 전국 450여개 도시에서 모인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베를린에서 시위를 벌였다. 결국 독일은 탈핵을 선언했다. 여기엔 독일 최대 환경단체로 탈핵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트(BUND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의 역할이 컸다. 1975년 창립한 분트는 회원, 후원자 등 50만명과 전문가그룹 700명이 참여하고 있다. YWCA는 3월 20일(화) 제20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마치고, 리처드 메르그너 분트 부회장의 강연을 열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을 요약해 실는다.

독일도 40년이 걸렸다

독일 반핵운동의 시작은 체르노빌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4월 2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는 세계 여러 국가, 특히 유럽에 큰 영향을 줬다. 당시만 해도 독일 정부는 체르노빌과 독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었다. 바람을 타고 온 방사능은 독일 남부에 영향을 주고 호우로 대기에 있던 방사능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농장 가축에 영향을 끼쳤다. 1986년 12만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시위 'WZZ Wackersdorf' 등 40년 동안 핵에너지 반대운동이 꾸준히 펼쳐졌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반핵운동은 녹색당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진다. 독일 정부는 핵에너지 폐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0

년 재생가능에너지 법안이 발의된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당시 핵발전소를 운영하던 4개의 주요 기업은 전국 전기 생산의 60%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송하는 전송망도 독점했다. 법안은 이러한 독점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전기회사가 전송망을 재생가능에너지에 최우선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더불어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고정가격으로 국가에서 매입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로비로 탈핵 중단위기, 시민들이 구하다

그러나 이런 전향적인 움직임은 자유보수정부의 등장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앞서 말한 4대 기업이 정부에 청원을 한 것이다. 핵발전소를 통해 얻은 이윤



이날 강연에는 15개 회원YWCA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1년에 약 300만 유로(한화 40억 가량)로 막대했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로비를 했다. 그 결과 핵발전소의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이를 비판하는 시위가 베를린에서 진행되면서 10만 여명이 모여 들었다.

핵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지면서 더욱 거세졌다. 수십만이 모인 시위가 전국에서 꾸준히 일어났고, 후쿠시마 거주자들을 독일로 초청해 원전사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분트에서는 일본 탈핵운동에 대한 연대로 1만 마리 학을 접는 활동을 하고,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1년 여름, 독일 정부는 8개 핵발전소에 대한 즉각 폐기를 선언하고 2022년까지 완전 폐기를 목표로 잡았다. 재생에너지법도 다시 제정했다. 2017년 전기 수요에 쓰인 재생에너지 비율은 36%를 차지했다. 보수진영과 사회민주진영은 2030년까지 65%의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데 합의했다.

핵에너지공화국에서 탈핵국가로

핵에너지 폐기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핵발전소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던 기업들은 에너지전환이

느리게 진행되길 바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핵에너지가 경제적이란 이유로 탈핵을 반대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핵발전소 중단은 '기술적 혁명'과 '정치적 혁명'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온다. 핵발전소는 대규모의 몇몇 기업만이 소유한다.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해 일반 시민이 직접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시민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 소수에 집중된 부를 다수에게 분배해 민주적인 형태의 경제구조를 만든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한다면 핵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훨씬 비경제적이다.

2010년 핵에너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현재 탈핵국가의 모델로 손꼽히게 된 데는 시민의 힘이 컸다. 체르노빌 사태부터 약 40년간 이어진 요구와 후쿠시마 대재앙 이후 벌어진 여러 시위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다. 시민의 요구가 없었다면, 핵발전소는 여전히 운행 중이었을 것이다. 단 하나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모여 요구할 때 세상은 변한다. 세계의 사람들이 핵발전소 폐기를 요구한다면 모든 핵에너지의 폐지가 이뤄질 것이다.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박상현, 송은서, 이예린, 류호준 학생이 2018년 1월 30일 193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마친 뒤 명동거리에 섰다.

참석 박상현 · 송은서 · 이예린 · 류호준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진행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탈핵담당 간사
글·사진 문운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 명동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피켓과 바람개비를 들고 탈핵을 외치는 YWCA 회원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 청소년, 청년들의 옛된 얼굴도 종종 마주친다. 방학마다 탈핵캠페이너로 활동하는 학생들이다. YWCA는 2014년부터 여름, 겨울 방학에 청소년 탈핵캠페이너를 모집하는데 참여가 늘고 있다. 방학마다 오기도 하고, 두 달 내내 참여한 학생도 있다. 3년째(박상현, 류호준), 2년째(송은서, 이예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다.

어떻게 탈핵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요?

은서·예린·상현·호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찾다가 알게 되었어요.

상현 핵은 전쟁무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핵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핵발전으로 생기는 문제가 많잖아요. 영화 <밀양 아리랑>을 보면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본질적인 문제는 '탈

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호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탈핵은 잘 몰랐는데 캠페인 하면서 눈이 뜨였다고 할까, 다른 문제도 알게 됐어요.

은서 처음 왔을 때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위촉장을 받았는데 다시 왔어요. 저는 핵폐기물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예린 은서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웃음)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 반응을 보면 어떤가요?

호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전후로 달라졌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주는 것 같아요.

은서 한 명이라도 더 쳐다볼 때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뿌듯해요.

다른 사람에게 탈핵을 이야기한 적 있나요?

은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핵발전소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좋은 일 했다고 하셨어요.

예린 우리 부모님도요.

상현 방학 직전 친구들에게 캠페인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호준 친구들에게 말하면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요. 내가 이과도 아니잖나, 어떻게 믿냐 등등. 어떤 친구들은 '원전 없으면 당장 전기를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원전 옆으로 이사 가서 살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핵발전소를 찬성할까요?(웃음)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호준 터지면 모두 망하잖아요. 원전을 짓거나 처리할 때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돈은 제가, 우리 시민들이 낼 거잖아요?

은서 책임을 다 후손들이 저야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린 핵폐기물은 처리할 데도 없고,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요.

상현 밀양 송전탑처럼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때 생기는 문제, 핵폐기물처리 문제, 미온수가 바다로 방출되고 생기는 환경파괴 등 아주 많아요.

탈핵을 앞당기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호준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서 사람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해요. 또 신재생에너지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접근이 쉽도록 만들어야 해요.

은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정보가 있어야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상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원전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겠죠.

정부나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호준 청소년들은 아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사회문제나 정책을 다룰 때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의견을 들을 경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서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전에 대해 제대로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현·호준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는 1학년 때 소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소개된 것뿐이죠(웃음).

은서 원전에 대해 올바르게 배웠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줬으면 해요.

예린 미래세대를 위해 핵발전소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었으면 해요.


상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 같아요. 반대와 찬성을 넘어 함께 대안을 생각하는 장이 있으면 해요.

다음에도 참여할 건가요?

호준 의미가 있는데다 봉사시간까지 주니까 계속 올 생각이에요.

은서 고3이지만 여름방학이 돼도 핵문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웃음) 또 올 거예요.

상현 맞아요. 핵발전소 문제는 진행 중이잖아요.

예린 할 수 있는 한 올 거예요. 



2018 한국YWCA 사무총장 해외연수가 2월 17일(토)부터 26일(월)까지 8박10일 동안 '탈핵운동 선진사례와 에너지 자립마을 탐방'을 내용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됐다. 5년차 이상 회원YWCA 사무총장 14명(광주, 김해, 남양주, 논산, 대구, 대전, 목포, 사천, 여수, 제천, 창원, 청주, 파주, 하남)과 연합회 오현숙 지역협력관, 송록희 부장이 참여했다.

지역에너지 자립마을을 찾다

YWCA가 탈핵운동을 선언한다고? 많은 분들이 물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작하다니... 지지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다. 더 알아야 했다.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탈핵을 실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을 사무총장 해외연수 장소로 결정한 이유다.

설날 저녁 대구에서 올라와 2월 17일(토) 인천공항을 출발, 폴란드 바르샤바공항을 거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했다. 현지에서 통역과 안내를 담당할 문기덕, 남상화 선생을 만났다. 설렘과 책임감이 교차하며 본격적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 귀쌍 유럽재생에너지센터를 시작으로 우어버스마을, 슈트렘마을을 찾았다. 귀쌍 유럽재생에너지센터는 변방 시골마을에서 에너지자립 마을로 변신해 유명한 곳으로 메탄, 액화바이오연료를 이용한 생산설비를 둘러봤다. 우어버스마을은 태양열과 화목보

일러를 결합한 근거리 지역난방으로, 슈트렘마을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소로 에너지자립을 넘어 마을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 할왕시 주민센터, 할왕초등학교 방문은 탄성 그 자체였다. 에너지 최적화와 효율화가 최고인 두 건물은 에너지제로를 넘어 잉여에너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패시브 건축물이다. 오스트리아 도시들의 모범사례가 된 할왕시는 주민센터 건축의 성공을 이어받아 하이브리드 방식의 에너지제로 학교로 할왕초등학교를 지었다. 유럽에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공모전을 하는데 에너지건축이 요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과 학교환경의 조화, 패시브 건축의 기술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부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독일로 이동했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을 갖춘 헤로만스 도르퍼 농가는 독일



뮌헨 에너지건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에너지설비와 건설자재 상설전시관 모습

유기농 선구자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아커만보겐 신주택단지와 에너지건설센터에서 저에너지 시스템을 견학하고, 즐라콤플렉스에서 주민주도 지역 에너지전환 브리핑을 듣고 소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기 현장을 둘러봤다.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에너지친환경 대중교통과 도시개발로 유명한 보봉마을을 견학했다.

두 나라의 여러 지역과 기관을 방문하면서 공통으로 느낀 점은 그들의 소통문화였다. 에너지전환, 지역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주정부, 연구기관, 주민들은 다양한 소통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다양한 소통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물어났다.

기술력, 절약, 효율성

빠빠한 일정 속에 10일간의 연수가 금세 지나갔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부당하다고 결정한 WTO 결정에 분노하며 규탄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YWCA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도 독일 모델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뮌헨에서는 2002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40여개의 시민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더 효과적인 시민발전소 건설을 위해 시민에너지협동조합(BENG)을 설립했다.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오늘의 독일을 만든




지붕과 벽면이 모두 태양광패널로 지어진 할왕초등학교 앞에서 연수단이 사진을 찍고 있다.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 독일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자 중 시민과 농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는다. 시민들이 전기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되어 에너지 주인으로서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귀쌍에서도 지역에 맞게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마을을 흐르는 작은 강물을 이용한 독일 정엔 소수력발전소는 옛날 우리나라 디딜방아, 물레방아를 떠올렸다.

독일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인상적인 제도가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논밭을 깎아 만든 전기와 환경의 피해 없이 만든 전기의 값을 달리해 매입하는 외부비용적용 제도, 대단위 건설계획시 기존 개발계획과 신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 당사자를 모아 의견을 결정하게 하는 계획확정절차 제도, 녹지가 훼손되면 시청은 건설업자에게 훼손된 만큼 녹지를 인근 지역에 조성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는 제도 등이다.

이런 법이 제정되고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2015년 사회적기업 연수로 독일 베를린을 다녀온 때가 생각난다. '돈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던 사회적은행 게엘에스뱅크(GLS-Bank)의 젊은 실무자. 태양과 바람,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현장엔 그 지역 특성에 가장 맞는 에너지원을 찾아 분석하며 절약, 기술력,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다.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참가자들이 각자 쓴 다짐문을 들고 있다.

제18차 한일YWCA청년협의회가 2월 23일(금)부터 26일(월)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청년의 힘든 삶 :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YWCA에서는 대학·청년Y 8명과 Y-틴 8명 등 16명의 청소년, 청년 회원이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청년이 말하는 사회

다른 국가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이번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는 나에게 귀한 자리였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 등록금, 전세금 등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간다. 일본 청년들도 같은 고민을 가질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오사카로 떠났다.

한일 참가자들은 이틀에 걸쳐 '빈곤과 지원 : 젠더빈곤과 지원, 아동(청소년) 빈곤과 지원'을 공통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YWCA 대학·청년Y 참가자들은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과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벽, 유리천장과 같은 불평등을 설명하고 실질적 정부 대책과 '슈퍼맘'이라는 여성상이 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29개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얘기했을 때, 참가자들은 모두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일본 참가자들은 싱글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사례를 다뤘지만 여성의 인권을 위해 YWCA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는 생각은 같았다.

Y-틴은 직접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충을 다루며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펼친 활동을 소개했다. 불과 몇 년 전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가 떠올랐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에 얽매이고,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들이 없어 답답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싶었다. 일본에서는 좋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이 JK비즈니스(여고생을 뜻하는 '조시코세'(joshi kosei)의 약자)라는 남성접대 서비스 등에 동원돼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난무한데, 양국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안전하게 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자유주제 발표에서 한국 참가자들은 청년기본법을 다뤘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해결해줄 정책이 없음을 꼬집고, 청년에게는 좋은 장소와 시간, 좋은 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본에서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서울YWCA 회원



한일 참가자들이 각자 언어로 기도문을 낭독했다.

는 재일한국인의 삶과 빈곤을 주제로 발표했다. 재일한국인을 위한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질 좋은 삶을 향유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각하지 못한 주제를 일본에서 발표해주어 재일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 배운 '공간'의 중요성

둘째 날에는 재일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추루하시 지역 방문과 주제별 그룹 현장탐방이 이어졌다. 코스A는 주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돌봄'으로 E-toko를 방문했고, 코스B는 '아동과 청소년'을 주제로 The Home for Children을, 코스C는 '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교토YWCA를 방문했다.

나는 일본어로 '좋은 장소'(いいとこ)를 의미하며 위탁과정과 같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E-toko를 찾았다. 처음 들어갔을 때 무척 놀랐다. 돌봄, 보호시설이라 하면 조금 딱딱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가정집과 다를 것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그때 생각했다. 머무는 이들이 편안하고 보호받는다 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좋은 시설이고 좋은 장소인 것이다.

셋째 날 그룹별 토론이 이어졌다. 나와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나누고 우리가 지향할 사회를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1년간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한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나의 이야기>를 펴내 페미니즘 교육과 성차별 경험을 공유하자는 의



함께 의논한 내용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다.

견, 한일 공동성명 작성 등이 제안되었다. 한일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활동으로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국에 돌아와서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

청년은 서로 연대해야 한다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공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일본말에는 한국 말에 없는 '이바쇼(いばしょ)'라는 단어가 있다. 공간을 뜻하지만 단순한 공간이 아닌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랑과 따스함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빈곤, 불평등,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따뜻한 공간인 '이바쇼'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느꼈다.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에서 나는 이야기를 참석하지 못한 YWCA 회원과 한국 청년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도 고민했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기획국장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 언어와 피부색, 종교와 성별, 성적 지향과 문화는 다르지만 세계 수많은 청년들은 이 순간 끊임없이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다. 때문에 청년은 서로 연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는 청년들이 연대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것이 청년과 사회 그리고 YWCA가 풀어야 할 과제이자 숙명이다. 🍀



김희숙 강릉YWCA 회장(왼쪽 왼쪽부터 세 번째)과 고문희 강릉YWCA 직전회장(앞줄 오른쪽부터 세 번째), 회원들이 최명희 강릉 시장(가운데 흰옷), 자원봉사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단일팀 구성, 저비용 고효율 개·폐막식, 매끄러운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화합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평창올림픽'으로 자리매김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도모임을 계기로 탄생한 강릉YWCA에게는 더 특별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 동계올림픽이 열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수요일마다 기도모임을 열어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한 강릉YWCA. 평창올림픽 성공의 숨은 공신, 자원봉사에서도 강릉YWCA의 활약은 빛났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서울올림픽으로 탄생한 강릉YWCA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과 강릉에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의 대장정으로 펼쳐졌습니다. 강릉YWCA에게 2018 동계올림픽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올림픽을 위한 기도모임은 그해 9월 15일 강릉YWCA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 30년이 되는 2018년 올해 이곳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릉YWCA를 쓰기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신기한 건 강릉YWCA회관이 빙상경기가 열리는 올림픽파크와 가장 가깝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릉YWCA는 매주 수요일 목상기도 민들레를 통해 기도모임을 열고 벽차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100일 전부터 매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강릉시기독교연합회와 연대하여 강릉YWCA회관을 선교올림픽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장소로 쓰임 받게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쫓겨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2018 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올림픽이 되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강릉YWCA는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 위한 모임을 열어 YWCA를 소개했다.

빙상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YWCA회관'

'하나된 열정'으로 강릉YWCA는 강릉아이스하키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관중안내와 순환구역 안내, 출입구 모니터링 등 매일 조를 편성해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봉사자 모두가 YWCA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 전날이나 설날 당일, 혹은 설 다음날 아침부터 근무를 하고 새벽 1시에 퇴근해도 불평 없이 감당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진 않았지만 밝은 미소와 몸짓으로 관중과 선수들을 안내하며,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평창 동계올림픽 슬로건 아래 강릉YWCA 식구가 하나되어 열심히 응원하고 봉사했습니다.

특히 중경회장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야간까지 이어지는 경기에도 힘든 내색 없이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태도와 서로 배려하는 밝은 모습,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청년봉사단원들이 항상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맡은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자기 밖에 모른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릉아이스하키센터에서 봉사를 하며 아이스하키가 정말 박진감 넘치고 관중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강릉YWCA는 강릉시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올림픽 기간 동안 거리전도를 펼쳤다.

경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원전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 선수들의 경기가 있는 날 하나되어 뜨겁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보다

17일 동안의 동계올림픽, 10일간의 패럴림픽 여정에서 모두가 올림픽에 '함께'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준비한 2018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아무런 사고 없이, 날씨로 인한 어려움도 없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의 쓸쓸함이 거리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때 보여준 하나된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 평화의 아름다운 씨앗이 뿌려져 통일이라는 아름답디리나무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작게나마 동계올림픽에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창대했던 그 끝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한 고맙고 소중한 모든 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한국YWCA연합회와 52개 회원YWCA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5년 9월 24일 인천YWCA 첫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가 열렸다.

우리나라 최초 중고품재활용 물물교환이 이뤄진 '바자'는 YWCA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1990년 YWCA 제1차 바른 삶 실천대회 이후에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로 모습을 바꿔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인천YWCA는 시민들의 자원절약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에 걸쳐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펼쳐왔다. 지난해 16차례나 열리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재활용운동이 되었다.

시민이 만들고 주도하는 나눔장터

티셔츠, 바지, 신발, 시계 등 다양한 물품들이 가득하다. 만물상을 방불케 하는 인천YWCA 나눔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체험과 놀이거리로 다채롭게 꾸민 이곳은 조금 특별하다.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는 자원재활용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인천광역시와 함께 시작해 현재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순환운동이 되었다.

2005년 9월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개장 당시에는 무엇보다 중고물품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홍보에 주력했다.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재활용 실천으로 이어졌고, 자원순환과 친환경적인 인천시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나눔장터에 가족 단위 참여를 이끌어 지역의 건전한 문화행사와 주말 여가활동의 장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 또한 인천시 각 군·구

와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가 되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의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나눔장터'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나눔장터', 마지막으로 인천YWCA 회관 앞에서 수시로 여는 '매장형 나눔장터'다.

나눔장터는 아나바다 방식으로 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직접 가져와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구입하는 자발적인 방식이다. 인천YWCA는 나눔장터의 자원순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새 물품과 고가상품, 유해물품이나 먹을거리는 금지했다. 판매자로 나선 시민들은 판매수익의 10%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이렇게 한 해 동안 모인 기부금을 연말에 인천지역 청소년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장학금과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1년 16번의 나눔장터 14년간 이어온 비결

오수진
인천YWCA 간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물건을 팔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육이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에코컵 만들기, 에너지절약 부채 만들기 등 친환경적인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한다.

나눔장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된다. 매년 100~150여명의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신청자 접수와 자리안내, 판매자 모니터링, 체험프로그램 보조 등으로 활동을 지원한다.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나눔장터는 학생과 교사, 지역 단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봉사와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나눔 만큼 사랑도 커진다

나눔장터에 함께한 시민들의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하다. 이경숙 구월여자중학교 교사는 "학생들과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에 참여하면서 자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자신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나눔의 즐거움을 제공한 교실 밖 생생(生生) 체험활동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랫동안 나눔장터에서 봉사한 유혜리 가림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통해 보람차고 뜻 깊게 보냈다. 지난해부터 2년간 나눔장터에 참여했는데 시작할 때는 설레는 기분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학생들이 녹색 나눔장터 기부금을 넣고 있다.

때는 뿌듯함과 보람찬 마음을 갖게 되어 정말 좋았다"고 즐거움을 전했다.

2012년부터 인천YWCA와 함께 나눔장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인천남구지역자활센터 생활나눔터사업단은 "나눔장터는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단의 목적에 알맞다. 장터에 참여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고, 사업단을 홍보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곳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암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참여자에게 나눔장터의 행복나눔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모습에 보람이 컸다"고 덧붙였다.

나눔장터에는 항상 감사와 보람이 넘친다. 장학금과 기부금 대상자는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기금인 만큼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해마다 나눔장터에 참여한 기관과 학교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와 함께 심사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7년엔 총 29명의 추천서가 들어왔고 청소년 13명, 성인 10명이 선정됐다. 14년간 121회에 걸쳐 열린 나눔장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총 7,600만여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지역 이웃 177명에게 장학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연말마다 '행복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장학금과 기부금을 전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나누고 있다. 2018년 첫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는 4월 14일(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혐오의 시대, 신이란 무엇인가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The Shape of Water)의 번역 제목은 '사랑의 모양'이다. 물의 형태, 물의 모양도 아니고 대체 왜 '사랑의 모양'일까. 물은 어디에도 흐른다. 물은 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니지만,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품는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도 그런 것일까.

수자 친구인 동료 청소부인 흑인여성 젤다, 옆방 사는 게이 화가 자일스, 괴물에 연민을 갖는 소련 스파이 연구원 디미트리와 함께 괴물을 빼돌린다. 그러나 힘 좋고 덩치가 크며 멋진 자동차를 자랑하는 보안책임자 스트릭랜드의 무지막지한 추격을 받고 일라이자와 녹색 괴물은 강 입구에서 충격을 받아 쓰러진다.

<셰이프 오브 워터>는 아마존에서 잡혀온 비늘투성이 녹색괴물과 소통을 하고 기어이 사랑에 빠지고 마는 말 못하는 여성 일라이자의 사랑에 관한 판타지 영화로 알려져 있다. 판타지 영화가 그렇듯 관객들은 이 괴물이 주인공의 사랑에 힘입거나 신비한 마법으로 '멋진 남성(대체로 백인)'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셰이프 오브 워터>는 그런 익숙한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린다. 괴물은 멋진 남자로 변신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원래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결코 패배하지 않은 채 연인 일라이자를 데리고 자신이 있던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아마존에서 생명의 신으로 숭배 받던 신이었으나, 원주민들이 석유개발에 저항하는 현장에서 보란 듯 잡혀온 무력한 괴물을 사랑한 일라이자. 그녀는 괴물에게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어요"라고 고백한다. 말도 할 수 없고 목에 커다란 상처를 지닌 일라이자

도 물속과 땅위를 오가는 반인반수의 괴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서 일라이자가 사랑한 대상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신할 의무도 없다. 오히려 '생명의 신'답게 어루만지면 상처가 치유되고 훼손된 것을 복원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군 수뇌부가 스트릭랜드에게 '자산'을 잃어버린 책임을 무섭게 추궁할 때 두려움에 가득 떨며 괴물을 빼돌리는데 협조한 일라이자의 동료들은 모두 소수자다. 동료 청소부 젤다는 "신은 나와 같은 모습일 거야"라고 떠벌리는 건장한 백인남성 스트릭랜드의 멸시 대상이고, 가난한 게이 화가인 옆방 친구 자일스는 파이가게 점원에 관심을 보였다가 '가족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파이가게에서 쫓겨난다. 소련의 스파이 디미트리는 괴물을 적국인 미국으로부터 빼돌릴 계획에 협력하고 있으나 한없는 연민에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은 처음엔 일라이자의 무분별한 사랑과 터무니 없는 납치계획에 주저하고 난처해한다. 일라이자는 이때 이렇게 외친다. "만일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와 다르게 생긴 괴물의 생명이라도 거대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해 손쉽게 훼손되고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힘센 '다수'에 의해 약자와 소수자들도 혐오당하는 괴물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는 걸 일라이자는 꿰뚫어본 것이다.

그리하여 신의 형상과도 멀고, 번영의 국가 미래를 위해 도움도 안 되는 찌질한 약자, 이성에 가족질서를 위협하는 혐오스런 성소수자, 언제 발각되고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는 이방인은, 어느새 함께 괴물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연대한다. 괴물과 그 괴물을 사랑하는 보잘 것 없는 여자, 그리고 소수자 친구들은 1960년대 냉전시대 미국 사회의 혐오와 배제, 차별의 대상이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따뜻한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어요" 일라이자는 반인반수의 괴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한 시선과 뜨거운 연대로 강력한 '사랑의 주체'가 된다.

신의 존재,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랑

"그대의 모양 무엇인지 알 수 없네/내 곁에는 온통 그대뿐/그대의 존재가 사랑으로 내 눈을 채우고 내 마음 겸허하게 하네/그대가 모든 곳에 존재하기에"

아마존의 신을 잡아와 고문하고 해부하고 신의 형상은 녹색괴물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백인남성이라 자부했던 보안책임관 스트릭랜드는 총을 맞고도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해 온전함을 회복하는 괴물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외친다. "오! 당신은 신이었어."

신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할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단일한 것일까.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는 더 세고 단일한 목표를 향해 치달아온 근대 이후 사회의 가치와 그 폭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대체 신은 누구며,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신은 자신이 창조한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곳에서 그것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마치 물처럼.

엔딩에 흐르는 시처럼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는 혐오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성찰을 가져다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임원회가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특별찬송을 불렀고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가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설교했다. 끝으로 새로운 지도력으로 올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를 위해 기도했다.

평화통일 염원 35일 기도운동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YWCA
35일 기도운동
(29~35일자)
한국YWCA연합회

”

전에 여러분은 약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굳은 기초를 놓으십시오.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21-23a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이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임을 알고 실천하는 YWCA가 되게 하소서
패럴림픽 개최가 우리 사회 곳곳의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YWCA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인 2월 9일(금)부터 3월 18일(일)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운동을 펼쳤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일 성경말씀과 기도제목을 만들어 52개 회원YWCA에 공유했다. 기도문은 YWCA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YWCA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한국YWCA가 2월 12일(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비롯한 YWCA의 평화통일운동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지원사업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부에서 승인되며 2018년 현재 107개 대북지원사업자가 있다.

YWCA 수도권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YWCA가 수도권지역(경기·인천권역) 경제교육을 담당할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았다.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법지원법에 따라 주관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청소년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경제교사 연수, 교육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수도권 지역은 이번에 처음 지정됐으며 2020년까지 운영된다. YWCA는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시설 입소자, 경력단절여성 등 YWCA 부속시설 회원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굿모닝미인카드 기금 전달식



YWCA와 농협이 함께하는 '굿모닝 미인카드' 기금 전달식이 3월 7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농협은 12년째 회원YWCA 법인카드와 개인들이 사용한 굿모닝 미인카드 금액의 적립분을 YWCA에 후원하고 있다. 2017년 기금은 9,907만원으로 YWCA 지도력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2월 28일(수) 연

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16개 가정·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쉼터, 지원시설 시설장 23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YWCA 성평등 운동을 강의하고 여성혐오 범죄와 낙태금지법 논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해 토론했다.

씽크머니 기초강사 교육



2018년 씽크머니 1차 YWCA 금융강사교육 기초과정 워크숍이 2월 28일(수) 서울YWCA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회원YWCA 예비강사 20명은 청소년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가지도록 이끌기 위해 씽크머니 강사로서 정체성과 전문성을 쌓았다. 이번 워크숍과 온라인 기초과정을 이수한 예비강사는 씽크머니 교육에서 보조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심화과정 워크숍은 7월 12일(목) 실시된다.

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연수



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연합회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연수가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과 직업훈련의 변화, YWCA 성평등 운동에 대한 강의에 이어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 구직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현황을 탐방하고 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YWCA는 전국에서 34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YWCA를 포함한 12개 여성·환경단체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2월 23일(금)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3월 8일(목) 국회의원회관 긴급토론회, 3월 19일(월) 일본 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력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WTO 상소기간에 맞춰 4월 20일까지 시민홍보, 서명운동 등 '방사능으로 부터 밥상안전 지키는 30일 집중시민행동'을 펼친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우리 사회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YWCA를 비롯한 340여개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3월 15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시민행동은 미투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도록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성평등

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촉구



YWCA를 포함한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3월 19일(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영수 연합회 회장, 김은경 성평등위원장, 김은주·한미미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기본권 헌법개정 촉구



YWCA를 비롯한 10개 여성·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3월 15일(목)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개정헌법에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주도의 포괄적인 소비자운동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선언 준비집담회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선언 준비를 위한 집담회가 2월 24일(토)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준비위원



인 장규식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의 '3.1독립선언서 다시 읽기' 발제로 시작한 이번 모임은 한영수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과 실무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에 소속된 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1독립선언서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를 두고 토론을 펼쳤다.

한영수 회장 <CBS 초대석> 출연



한영수 연합회 회장이 CBS방송 <CBS 초대석>에 출연했다. 박재홍 C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인터뷰는 3월 13일(화)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본 방송은 3월 30일(금) 오전 7시30분, 재방송은 3월 31일(토) 오후 11시와 4월 2일(월) 오후 5시50분에 방영된다.

장미란 위원 통일부 장관 표창

장미란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3월 7일(수)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20차 정기 대의원회 시상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장 위원장은 2016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



위원장으로 북한어린이돕기, 여성평화걷기, 여성평화순례 등 다양한 여성평화운동을 이끌고 있다.

박영순 위원 '여성평화순례' 디자인 기부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 명예교수인 박영순 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



서 백두까지' 상징 디자인을 YWCA에 기부했다. 30년간 독창적인 색동조각보 디자인 연구에 힘쓴 박 위원은 2015년 국제여성평화걷기를 대표한 '평화의 조각보'를 디자인했으며 이듬해 YWCA에 디자인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디자인기부 협약식은 1월 26일(금) 연합회에서 유성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 2. 1~2. 28)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운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선형, 김수연, 김수진,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희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정미,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한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종숙, 이종경, 이주영, 이찬형, 이찬진, 이현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최수나, 최지영,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2,070,000
개인기부	박복례, 최혜실	32,69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260,000
기관및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니다스, 르뽕(명동성당점), 알파문구(명동성당점), 에씨레 젤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217,020
합계		2,579,71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 2. 1~2. 28)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기부	김갑련, 김분한, 김서연, 김옥순, 김재연, 김진용, 김해정, 김혜연, 박미혜, 서은희, 신상용 외 3인, 안종순, 염윤경, 윤금수, 이기훈, 이송연, 이정신, 이주영, 이희숙, 이희정, 정미자, 정애화, 조봉자, 조수진, 진혜선, 천규승, 황미자	430,000
합계		430,000

Y아카데미 연수



실행위원 연수

2018년 연합회 실행위원 연수가 2월 27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실행위원 17명과 실무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들이 직접 2018 한국사회와 YWCA 운동, YWCA 자원활동가 리더십, 한국YWCA 100주년 비전과 2018 핵심과제 실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역, 젠더, 공동체, 리더십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YWCA 실행위원의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고 다짐했다.



지역위원장 연수

2018년 YWCA 지역위원장 연수가 3월 8일(목) 연합회에서 열렸다. 경기, 북부, 서부, 동부, 중부 지역위원장 5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 발전을 위한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지역위원회 운영 비전과 지역운동성 향상 방안도 토론했다.



회원YWCA 신임 회장 연수

2018년 YWCA 신임회장 연수가 2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1박2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10개(거제, 김해, 진해,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제주, 청주, 마산) 회원YWCA 신임 회장이 참석했다. 3월 23일(금)에는 3개(전주, 통영, 평택) 회원YWCA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회에서 추가연수가 진행됐다.



회원YWCA 신임 사무총장 연수

2018년 YWCA 신임사무총장 연수가 3월 14일(수) 연합회에서 열렸다. 7개(서천, 인천, 전주, 진주, 진해, 춘천, 통영) 회원YWCA 신임 사무총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YWCA의 정체성과 사무총장의 역할을 이뤘다. 또한 회원YWCA가 당면한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YWCA 신임 이사 교육

2018년 YWCA 신임이사 교육이 3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1박 2일간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전국 회원YWCA 신임이사 40여명이 참석해 2018년도 한국YWCA 정책 관점인 '지역과 젠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YWCA 정체성과 비전, 이사의 역할을 논의했다.

한국YWCA연합회 위원회 소개 2018~2019년 상임·특별위원회

한국YWCA연합회는 2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단과 실행위원, 공천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2년간 임기로 활동하게 되는 임원단과 특별·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회

회장단 한영수 회장, 원영희 제1부회장, 이종임 제2부회장
회계 조은영 제1회계, 이영희 제2회계
서기 백혜진 제1서기, 한미미 제2서기
상임이사(사무총장) 유성희

실행위원회

곽지영 김말숙 김경희 김명희 김은경 김은주 김태연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박은경 백혜진 손정원 안수경 원영희 윤수정 이명혜 이아람 이영희 이은영 이종임 장미란 정유진 조은영 최형선 하은경 한미미 한영수 함희경 ※ 전문직(박영순, 정선경) ※ 당연직(서지수 Y-틴 전국협의회장,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 5부 지역위원장)

명예연합위원

강교자 김갑현 김숙희 김영정 김영희 김재화 김현자 김형 신희은 이행자 정희경 주선애 차경애

공천위원회

김은경 김향규 김 형 정동신 최양님 차경애 최만자 하선규 신희운(직전 위원장)

5부 지역위원장

경기 정성옥(안양YWCA), **동부** 유영은(대구YWCA), **북부** 조종남(서울YWCA), **서부** 민혜원(광주YWCA), **중부** 김정민(대전YWCA)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한국여성지도자상 운영위원회	한영수	김효선 박종화 박혜란 백미순 송기영 엄경식 원영희 유성희 이명혜 이종임 이행자 정운찬 최금숙
모금행사특별위원회	원영희	문권희 오영란 윤수정 윤혜선 이명혜 이종임 조은영 한영수 이선희 정현경 주철환 황신애(전문위원)
시니어Y위원회	이종임	신 선 윤명선 이숙현 이주영 임국이 정영숙
100년사준비위원회	최형선	박용옥 원영희 이종경 이종임 최만자 한영수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위원
인사위원회	원영희	김태련 김 형 문미란 이명혜 이은영 이종임 조은영 차경애 한영수
정책위원회	이종임	김 형 배영자 원영희 이명혜 이숙현 이행자 한영수
Y아카데미위원회	이은영	곽지영 김명희 김신애 박윤애 이숙진 장우주 장윤경 조혜영 최소영 최인숙 최형미
성크머니자문위원회	함희경	김추인 문현규 임지은 오영란 이경민 이주실 정석진 한영섭 홍정림
회원Y협력지원위원회	원영희	강교자 김경희 김말숙 김정민 김태연 문상순 민혜원 유영은 이명혜 이영희 이종임 정성옥 조종남 한영수
Y-틴 위원회	안수경	강보경 김영자 박윤애 이경희 이윤지 정신실 정혜련 조진경 최향숙 최효선 서지수(Y-틴 전국협의회 회장)
탈핵생명위원회	이종임	김경희 백혜진 성인심 이진형 최선화 하선규 황기숙 김혜정(전문위원)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김난주 김미진 김은주 마정윤 박동순 오영란 전현숙 한영애
평화통일위원회	장미란	공용철 김은주 김현경 박영순 손정원 엄에스더 이진용 전배자 하은경 이나영(전문위원)
돌봄살림위원회	이은영	김은선 윤수정 장옥현 차경애 최순영 표대중 윤정향(전문위원)
대학청년위원회	정유진	구광모 김예지 박성연 손지수 서형원 이보람 차민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앙임원)
국제협력위원회	함희경	김영자 이아람 임영희 장윤재 채혜원 최유미 한미미
홍보출판위원회	문미란	김민주 백수경 이경순 이은혜 이하나 정선경 조한나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생활방사선 바로알기 교육



고양YWCA와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월 27일(화) 생활방사선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정규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박사가 방사선 기초교육과 계측기 사용법을 강의하고, 참석자들이 생활용품 방사선 수치를 직접 측정해보기도 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방사선 위험용품이 건강제품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와 함께 저감방안을 설명했다. 시민 3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후원했다.

남양주YWCA

이중은 팀장

별빛지역아동센터 개소



남양주YWCA는 2월 28일(수) 별빛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별내동 별빛마을 3~5 단지에 신설된 별빛지역아동센터는 남양주권역 첫 아동센터로 지역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맡게 된다.

남양주YWCA는 경제금융교육 씽크머니, 탈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장을 돕고 있다.

수원YWCA

정지영 주임

돌봄미자치회 정기총회



수원YWCA 돌봄미자치회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모두 세 차례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 사업·회계보고와 2018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2월 24일은 간병돌봄미 모임인 민들레자치회, 2월 27일은 산모돌봄미 모임인 동굴레자치회, 3월 10일은 살림·아이돌봄미 모임인 해바라기자치회가 각각 총회를 진행했고, 모두 17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돌봄임원 워크숍



‘안양돌봄과살림’은 2월 24일(토) 2018년 돌봄임원 워크숍을 열고, 신·구 임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살림, 산모, 아기돌봄미 각 파트 회장과 조장 3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철남 안양YWCA 증경회장이 ‘리더의 열정과 비전’을 강의했으며 ‘경청의 방법과 효과’를 주제로 한 역할극 놀이, 터치테라피 등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YWCA 회원으로서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거제YWCA 성폭력상담소는 2월 22일(목) 시민들과 함께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아동성폭력 예방! 어른들의 관심에서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동성폭력 예방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정부는 2006년 용산 아동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지를 다지는 뜻에서 매년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해YWCA

곽민옥 간사

민들레 산모모임



김해YWCA 산모건강관리사 회원들이 3월 16일(금) 2018년 첫 ‘민들레 산모모임’을 열어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힘찬 출발을 내디뎠다. 민들레 산모모임은 산모건강관리사 회원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모여 정보와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이번 3월 모임에는 정재연 김해YWCA 회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대구YWCA

진명진 남구꿈드림센터장

‘학교밖 청소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대구YWCA가 운영하는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2월 24일(토) 학교밖 청소년들과 실무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아 열린 응원전을 펼쳤다. 남자컬링 경기를 관람하며 열정적인 응원전을 벌인 청소년들은 동계올림픽에 직접 참여한 특별한 기회에 뿌듯해 하고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부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2월 22일(목) 부산YWCA 일한실에서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었다. 온·오프라인 감시단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제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대식에 참석한 감시단원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예배



올해부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천YWCA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사천시여성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번 통합으로 센터는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족, 맞벌이가정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야간, 주말까지 운영시간을 늘렸다. 사천YWCA는 2월 9일(금) 최봉철 용현교회 담임목사의 설교로 센터 이전예배를 진행했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양산YWCA는 2월 22일(목) 양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으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산 지하철역과 이마트 일대에서 연대 소속 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에게 리플렛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2018 상임위원회

울산YWCA는 2월 19일(월) 강당에서 위원과 실무활동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웃음치료 강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진행했다. 공동체 예배, 참석자 소개에 이어 신입위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어린이집 '백두반' 졸업식



진주YWCA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은 2월 22일(목) 진주YWCA 강당에서 7세 백두반 졸업식을 진행했다. 사물놀이와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던 2017' 영상 상영으로 시작한 졸업식은 김성이 진주YWCA 회장 축사, 동생들의 축하(다섯 글자 예쁜 말), 우리들의 답가(꿈꾸지 않으면), 졸업장과 상장 수여, 엄마 아빠께(행복의 날개) 등의 순서로 이어지며 헤어짐의 인사를 나눴다.

창원YWCA

김도희 간사

상임위원회 'Y' 정체성 교육

창원YWCA는 2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YWCA 역사와 운동을 공유하고 'Y' 정체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보냈다. 상임위원장이 위원들에게 YWCA 역사와 자원지도자의 역할, 4대 중점운동을 설명했고, 위원들은 자원활동가로서 자세와 역할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서지현 검사' 지지 기자회견



통영YWCA를 비롯한 19개 통영시 여성·시민단체 200여명의 회원들은 2월 5일(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인근에서 '서지현 검사 지지 및 성역 없는 수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들은 검찰내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와 성차별 조직문화 개혁을 촉구하면서 통영지청까지 행진과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지현 검사는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이·미용봉사단 발대식



포항YWCA는 2월 28일(수) 이·미용 봉사단 발대식을 열

었다. 전점숙 포항YWCA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이미용 봉사단원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은 봉사단장 임명장 수여, 봉사자 소개, 자원봉사 활동 결의 등으로 진행됐다. 포항YWCA 이·미용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이웃과 소외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설명절 맞이 어르신 사랑나눔



강릉YWCA는 1월 30일(화) 설을 맞아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지내도록 각처에서 후원한 물품을 전달했다. 봉우리봉사단 떡국떡 150팩, 국민연금관리공단 쌀 20포대, 공군 18전투부대 현금100만원, 싱싱축산 달걀 10개드리 1,200묶음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을 통해 1,200명의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특별행사 '명성황후' 취소

서울YWCA 회원·시민 여러분께

2월 마지막 날 아침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서울YWCA가 창립96주년 기념 특별행사로 진행하기로 한 3월 8일 유지일 명성황후 특별행사를 취소하기로 하게 되니 임시 이사회를 통해 아쉽게 결정 했습니다. 이유는 명성황후의 연수기간 혼란, (주)에이클 대표의 성추행 보도 관련 때문입니다.

지난 96년 동안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추방운동을 펼치신 서울YWCA의 목적에 맞게 또한 함께 성폭력 관련 미투(me too)운동을 지지하고 위드유(with you)운동에 동참하는 서울YWCA가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깊고 치열한 고민 끝에 공명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음을 전해드립니다.

기도와 참여를 아끼지 않으셨던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후원을 약속한 기업 단체들에게도 Y와의 인연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경성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공명 관리를 원하신 모든 분들께는 소명드리고, 후원을 약속한 기업 단체들에게도 Y와의 인연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경성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원본은 3월 5일까지 연혁드리 입금여 확인, 계좌번호를 받아 3월 6-7일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원해주시 후원금도 모두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사후처리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YWCA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번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YWCA 소식 3월

윤호진 연출가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이번 결정은 서울YWCA가 '미투,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고,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추방운동을 펼쳐온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여성을 향한 성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뤄졌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원주YWCA 농산물 명예감시원 20명은 설날을 맞아 2월 12일(월) 원주 풍물시장 오일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을 알리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인천YWCA

오수진 간사

대학·청년Y '사랑의 반찬나눔'



인천YWCA 대학·청년Y 회원들은 2월 10일(토) 설맞이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독거어르신 다섯 가정에 전달했다. 청년들은 정성들여 만든 잡채와 꼬치산적, 고기완자 등을 들고 지역 어르신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어린이집 졸업식

춘천YWCA 어린이집 제27회 졸업식이 2월 22일(목) 진행



됐다. 졸업생들이 합창, 난타, 댄스, 컵타 등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졸업생 원아 41명이 부모님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LOVE'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돌봄 활동가 월례회



광양YWCA는 2월 23일(금) 돌봄 활동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노성희 광양YWCA 사무총장이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에 대한 이해, 화에 대한 몸의 언어, 분노표출의 다양한 유형, 분노조절 전략 등으로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도왔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이사·위원 오리엔테이션

광주YWCA는 3월 6일(화) 2018년 이사, 공천위원, 상임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임원들이 새로 선출된 이사, 공천위원, 상임위원들에게 YWCA 목적과 정체성, 자원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등을 교육하고 사명감으로 YWCA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모임



남원YWCA는 2월 8일(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함께하는 모임을 열었다. 2018년 사업지침 매뉴얼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시 유의할 점을 교육하고, 관리사들이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서로 나눴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어린이집 졸업



목포YWCA 어린이집은 2월 23일(금) 한솔반 교실에서 14명의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졸업식을 열었다. 졸업예배, 졸업증서와 상장 수여, 송사와 답사, 추억의 영상, 졸업가·원가 부르기 등으로 진행됐다. 4~5

년 동안 생활했던 원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는 추억의 영상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학부모 진로교육 특강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는 2월 20일(화) 서귀포YWCA 회관에서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진로교육을 진행했다. 이유남 서울명신초등학교 교장이 '당신은 학부모인가? 감시자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귀포YWCA가 운영하는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YWCA

손모아 간사

순천주암생명숲돌봄센터 시장놀이



순천YWCA가 운영하는 순천주암생명숲돌봄센터는 2월 27일(화) 순천시민봉사단 '사랑의 봉팔이'에서 후원한 40만원 상당의 신학기 문구류와 다과류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경제개념을 일깨워주는 시장놀이를 했다. 순천 Y-틴 청소년들이 일일교사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고, 돌봄센터 어린이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체험과 양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배웠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제9대 박연국 회장 취임식



익산YWCA 제9대 박연국 회장 취임식이 2월 22일(목) 익산그랜드팰리스호텔에서 열렸다. 장덕순 이리신광교회 담임목사가 인도한 취임예배로 시작한 취임식은 익산YWCA합창단 축하, YWCA 목적문 제창, 피아노3중주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정현울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과 회원 17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사무총장 이·취임식



전주YWCA는 2월 2일(금) 전주바울센터에서 제13대 이명자 사무총장과 제14대 임경진 사무총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예배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권경미 신임회장 인사말,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축하, 김승수 전주시장 격려사, 영상 상영, 이·취임사, 축복의 노래 등으로 진행됐다. 38년간 봉사한 이명자 사무총장의 활동을 담은 '38년간의 사랑, 그리고 동행' 영상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이사·위원 연구모임

논산YWCA는 1월 31일(수) 강당에서 이사·위원 연구모



임을 열었다. 각 위원장들이 위원회와 위원을 소개했고, 김형남 한국YWCA연합회 협력위원이 'YWCA 정체성과 나'를 주제로 자원활동가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이어 송록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이 'YWCA 탈핵생명운동'을 주제로 탈핵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사·위원들은 탈핵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대전YWCA

이진주 간사

시민학교 한글교실 수료식



대전YWCA는 2월 28일(수) 시민학교 학생과 강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민학교 한글교실' 수료식을 진행했다. 시민학교 한글교실은 비문해 여성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 산수, 영어, 한자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5일(월)에는 '2018년 시민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2018년 프로그램협의회

세종YWCA 본부와 어린이집, 성인권상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월 20일(화)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청사 대강당에서 경건회를 시작으로 세종YWCA 2018년 프로그램협의회를 진행했다. 각



센터장들이 결단의 말씀을 낭독하고, 2018년 한국YWCA 운동정책 설명을 듣고 기관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세계기도일 예배



2018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3월 2일(금) 제천 동산감리교회(담임목사 이종남)에서 17개 교회 100여명의 여성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수리남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실무자 복지의 날 '초콜릿 만들기'



천안YWCA는 2월 13일(화) 실무자 복지의 날을 맞아 '발

렌다이 초콜릿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실무자들은 초코타르트를 함께 만들며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실무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이사·위원 연구모임



청주YWCA 이사·위원의 지도력을 발굴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월 27일(화) 천안 상록호텔 무궁화홀에서 2018년 이사·위원연구모임을 열었다. 청주YWCA 16개 위원회가 참석해 성평등 인식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강의와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이사와 위원들이 2018년을 시작하며 생각을 나누고 청주YWCA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충주YWCA는 2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충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충주YWCA는 공익형 2개 사업(EM환경지킴이,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정원 180명 모집에 210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해 면접을 진행했다.

3·8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선언

2018년 3월 8일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110년 전 빵과 장미를 들고 여성의 노동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미국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성차별 인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한국YWCA 회원들의 외침이 여기에 있다.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피해 고발로 촉발된 한국의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대학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메가톤급의 성폭력 피해 고발이 잇따르며 참담함과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매순간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와 가정과 직장, 거리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폭력은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폭력이다. 동시에 여성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정부와 기업, 심지어 경찰과 검찰 조직까지 성추행과 조직 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결국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등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폭력을 겪도록 방치하였고 폭력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하고 말았다.

한국YWCA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연시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낡은 사회인식과 그에 가세하여 일탈적 행동을 관습으로 치부하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 문화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에 저항한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부 남성의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성범죄다. 성범죄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노리개로 취급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구체적인 성폭력 가해자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한국YWCA는 성폭력 관행이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문화적 조치를 촉구한다.

1922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YWCA는 '미투운동'에 용기있게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며,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적인 성폭력사건 전달기구 설립,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 개선과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3. 8.

3.8 여성의 날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 참가자 일동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이 만드는

월간 한국 YWCA



월간 <한국YWCA>를 보면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정기구독으로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지금, 신청하세요!

● 구독료 1년 2만원(10회 발송)

계좌이체 2만원 일시불 입금,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CMS납부 CMS 출금이체 신청서 작성

● 신규구독 신청

신청 구독명단(이름, 주소, 연락처)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시오
이메일 ywcapr@hanmail.net
문의전화 02-774-0230 홍보출판팀